오늘의 날씨와 생활

10월 14일 월요일 음 9월 16일 (8물)

기상정보

맑음

제주는 맑고 화창한 가을 날씨가 되겠다. 아침 기온은 16~17℃, 낮 최고 기온은 22~24℃로 예상된다. 내일까지 해안가에서는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0%	제 주	0%
0%	성 산	0%
0%	고 산	0%
0%	서귀포	0%

	해뜸 06:37 / 해짐 18:02	달뜸 18:34 / 달짐 06:37
물때	만조 10:55 / 23:02	간조 05:07 / 17:24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구름 많음	13/20℃
모레	구름 많음	15/20℃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관심	높음

월드뉴스

태풍 '하기비스' 日열도 강타 26명 사망·실종

이틀새 1001㎜ 폭우 쏟아져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 열도를 강타해 26명이 사망 혹은 행방불명됐다.

13일 NHK에 따르면 하기비스가 전날 저녁 일본 열도를 상륙해 폭우를 쏟아내며 이날 오전 11시30분 현재 사망자 10명, 행방불명자 16명이 발생했다. NHK는 이와 함께 부상자가 12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기비스는 전날 저녁 시즈오카현 이즈반도에 상륙한 뒤 밤새 수도권 간토 지방에 많은 비를 내린 뒤 도호쿠 지방을 거쳐 태평양 쪽 해상으로 빠져나가 이날 정오 온대성저기압으로 소멸했다.

이번 태풍은 큰 비를 동반한 것이 특징으로, 수도권과 도호쿠 지방이 큰 피해를 입었다. NHK에 따르면 각지에서 연간 강수량의 30~40%에 해당하는 비가 하루, 이틀 사이에 쏟아졌다.

태풍 하기비스로 넘어진 차량과 파손된 주택.

가나가와현의 인기 온천 관광지인 하코네마치에는 이날 새벽까지 48시간 동안 1001㎜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같은 시간 강수량은 시즈오카현 이즈시 이치야마 760㎜, 사이타마현 지치부시 우라야마 687㎜, 도쿄 히노하라무라 649㎜에 달했다. 이들 지역은 모두 기상청의 관측 사상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다.

강풍과 폭우의 영향으로 전날 한때 수도권과 전국에서 42만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 NHK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일본 국내선 항공기 818편의 결항이 결정됐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이용곤 편집국장 김기현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백록담

조 상 윤
정치부국장

586이 '586'세대에게…

과거에 민주화운동의 주역이었던 386세대가 시간이 흘러 지금은 우리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586세대로 바뀐 뒤 위아래 세대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매를 번다는 표현이 적절할 듯 싶기도 하다.

386세대를 굳이 다시 설명하자면 90년대 들어 연령대가 30대이면서 80년대 학번이고, 60년대생들을 칭한다. 80년대 민주화운동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나름 의식있는 집단으로 분류되고 있다.

앞선 베이비부머 세대와 X세대에 끼였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시대적 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 집단이 대한민국 사회를 쥐락펴락하는 위치에 놓이면서 분란 아닌 분란이 나타나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놓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사회전반에 걸쳐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격전이 전개되고 있다. 조국 장관을 포함한 상당수의 인물들이 386, 지금은 586세대이기 때문이다.

민주화 운동 등을 바탕으로 올곧게 성장해온 이들은 과거 꼰대 세대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일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기대보다는 실망감에 무게를 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파열음이 잦은 게 최근의 현실이다.

과거 컴퓨터 성능을 286, 386, 486, 586 등으로 분류하던 시대에서 그야말로 눈 깜빡하는 사이에 세상이 변하고 있다. 컴퓨터의 성능은 586인데 사고와 행동은 과거의 시간에 멈춘게 아닌가 싶다. 변화의 기류를 무시한채 어렵사리(?) 얻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현상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구성원 중 일부 586세대를 포함한 여러 세대가 일부 586 집단에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주지역사회도 예외일 수는 없다. 밖에서 보는 제주와 안에서 바라보는 제주는 전혀 딴판이다. 천혜의 관광지 제주이면서, 갈등이 끊이지 않는 섬 제주. 그 중심에서도 586을 빼놓을 수 없다. 투쟁의 역사를 이끌었던 주역들이 제주의 미래를 위해 분투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제주의 미래를 위한 게 어떤 것인지, 최근의 현상들이 어느쪽이든 일방통행이 아닌지 묻고 싶을 정도다. 자신들의 주장은 모두 맞고, 상대의 의견은 맞지 않다는 이분법적인 판단으로 갈등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라는 말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오로지 직진만 있고, 후진은 없는 듯 하다. 돌아가는 길도 잊은 듯 하다. 돌아서 가면 손해보고, 늦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큰 이유일까.

586은 다시 586을 되돌아보는 혜안을 길러야 할 것이다. 옳고 그름이 아닌 무엇이 모두를 위한 것인지 꼽씹을때가 된 것 같다. 그리고 우리도 내려놓자. 그것도 좀 많이. 물 흐르듯 순리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 세대가 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586을 향한 시선들은 586세대를 우리 시대의 구성원으로 다시 한번 끌어안아줬으면 한다. 특정세대를 빼놓고 우리사회를 미래로 이끌 수는 없다. 심판의 시간(4·15)은 183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열린마당

이 가을에 독서 산책

서 유 정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책을 읽기에 가장 좋은 계절, 가을이다. 책은 마음에 양식을 가져다주는 가장 훌륭한 선물이기도 하다.

최근 직장내 독서통신교육을 통해 책 한권을 읽은 적이 있다. '여행의 자유'라는 책인데, 여행기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성공이라는 목적을 향해 집을 떠난 주인공이 이런저런 시련을 겪다가 원래 성취하고자 했던 것과 다른 어떤 것을 얻어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들 인생사와 비슷한 것 아닌가 싶다. 태어나서부터 경쟁의 테두리 안에 갇혀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고 그로 인해 얻고자 했던 것들을 얻었을 때 얼마나 많은 성취감을 느끼는지 이 책에서는 인생과 여행은 그래서 신비롭다고 말한다.

이책을 통해 새로운 시각과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 기존의 여행방식과 다르게 인생이라는 여행의 참된 느낌을 갖고 더욱 더 멀리, 많은 여행을 떠나면서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렇듯 책은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를 만들어 낸다.

개권유익(開卷有益)이란 고사성어가 있다. '책을 읽으면 유익하다'는 뜻으로 독서를 권장하는 말이다.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직원들의 교양을 넓히고, 심신을 수양할 수 있도록 매달 독서통신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평소 도서관 가기 귀찮거나, 어떤 책을 봐야할지 고민하는 분들은 독서통신교육을 이용하면 새로운 신간과 함께 추천도서도 제공된다. 추가로 상시학습 3시간까지 보너스로 받으니 일석이조다.

독서를 통해 교양도 넓히고 심신 수양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힌다'는 안중근 의사의 말씀처럼 독서의 즐거움을 실천해보길 바란다.

119의 이송병원 선정, 믿고 함께 해 주세요

한 금 연
제주소방서 이도119센터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18년도 제주도내 119구급대가 출동한 건수는 5만1013건, 그 중 종합병원으로 이송한 환자수는 3만9742명에 이른다. 문제는 도민들의 특정병원 응급진료 선호로 인해 응급환자 과밀화 진료문제를 더 가중시켜 이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피해로 되돌아오고 있어 한숨 섞인 탄식이 나온다.

응급환자 발생시 119구급대의 환자 이송병원 선정기준은 중증질환 및 중증외상환자시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병원으로 이송, 경증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병원으로 이송한다. 그러나 심정지 환자 발생인 경우는 가장 가까운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의 곳으로 이송해야 하므로 환자 발생장소 기준 도내 어느 종합병원이든 이송이 가능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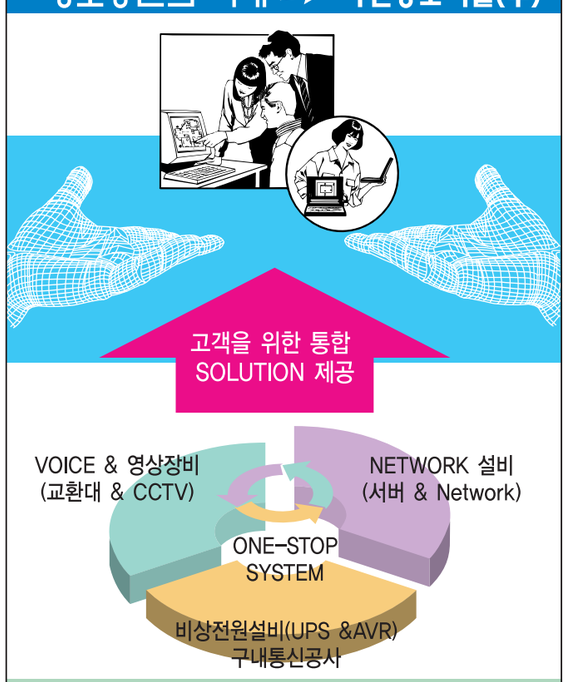
이런 기준에도 불구하고 119구급대의 이송병원 선정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환자들의 이송병원 선호도에 의한 119구급대와의 마찰이다. 환자들의 평소 진료 받던 특정 병원만의 이송을 원하고 있어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환자 이송기준과 다른 곳으로 종종 이송된다. 이것은 어느 특정병원의 응급환자 과밀화를 가져오며 응급실은 진료대기환자로 금세 가득차 119구급대가 병원에서 장시간 대기상황발생으로 인한 구급출동 공백발생, 중증환자의 적정 치료시간 지연, 의료진의 과로 등의 문제가 도미노처럼 현재 매일 일어나고 있다.

응급상황 발생시 최단시간 적정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119구급대의 이송병원 선정기준을 환자들이 믿고 따라준다면 응급의료체계 여건에 여유가 생겨 체계적이고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가 예상된다. 현재 119구급대에서는 환자 이송전 도내 종합병원 응급실 수용가능 침상정보, 중증환자 수용가능 정보등 환자들의 이송 및 진료 편의를 최대한 확인해 상황설명 후 병원 선정과 이송에 임하고 있다.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3년생
감 평 3년생
천 혜 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 금 향 4년생
하래조생 3년생
탱 자 묘 1년생, 수고 70전
한림종묘
010-3690-245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영귤
• 한라봉 • 히로시마7호
• 오하라베니
• 천전(가와다)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 유라실생 1,2,3년생
* 레드향 (무독) 1,2,3년생
* 천혜향 (무독) 2,3년생
* 궁천 1,2,5년생
* 궁천 변이지 1,2년생
* 하례조생 1,2년생
* 일남희 (제일 빠른 극조생) 6년생
* 한라봉 5,6년생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